

2015년 낙농사료산업 결산과 2016년 전망



안대봉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축우마케팅 이사



2015년 낙농사료산업 결산

대한민국 낙농산업은 2011년 FMD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평균 200만톤(일 평균 5,600톤)의 원유가 공급되어 지급률 55%를 보여왔다. 2013년 유대산정 체계 변경 및 FMD이전 수준으로 사육두수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2014년 국내 원유 생산량은 총 221만톤(일 평균 6,066톤)을 기록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이는 2015년 9월말 국내 분유재고량 20,729톤으로 이어졌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분유재고의 증가는 원유 생산량 감축 정책으로 이어졌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선택한 '저능력우 도태'와 '사료 급여량 감소'(저영양 사양관리)는 전년 대비 약 2%의 낙농배합사료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표1. 월별 젖소용 배합사료 생산동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16	104	109	114	112	106	112	110	111	118	107	120
2015년	113	102	112	111	108	109	110	107	112	116	-	-
증감률	-2.8	-1.7	2.5	-2.5	-4.2	3.4	-1.5	-2.4	1.3	-1.4	-	-

EU의 원유 생산 쿼터제 폐지, 러시아의 금수조치 등으로 벌어진 유제품의 공급 불균형은 국제 분유시세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으며, 안정적인 곡물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낙농가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유효율(Dairy efficiency)이 좋은 낙농 선진국(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유생산이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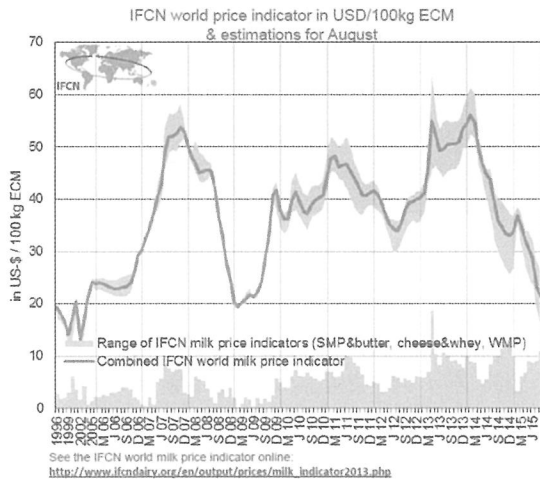


그림1. IFCN (International Farm Comparison Network) 세계 우유 가격 지수 (출처 : IFCN)

2015년 배합사료용 곡물 시장을 회고해 보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 본격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곡물시세 하락폭이 시장에 실제 반영되는 폭을 다소 줄였으나, 지난 한해

목장의 생산비를 큰 등락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작황은 전년 대비 약간 낮은 상황이나 경제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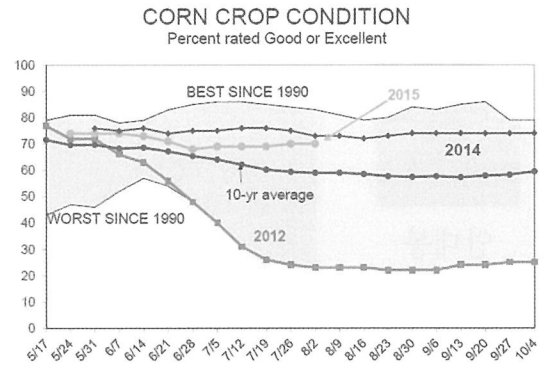


그림2. 미산 옥수수 작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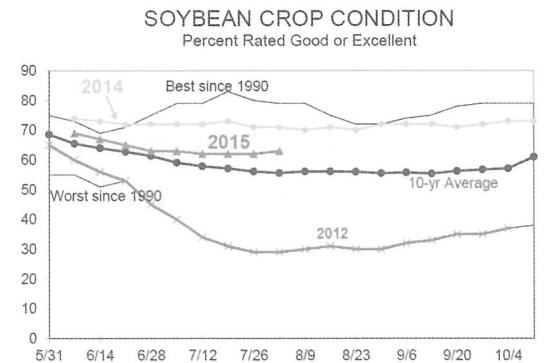


그림3. 미산 대두 작황 현황

또한 미국 내 안정적 강우량은 전체 방목지(Pasture) 상황을 우수한 상태(Good/Excellent)로 유지시켜, 수출되는 조사료의 시세와 공급량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수입되는 곡물과 같이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폭이 감소했으나, 이 역시 안정적 생산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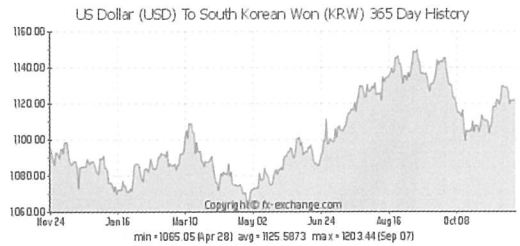


그림5. 2015년 원-달러 환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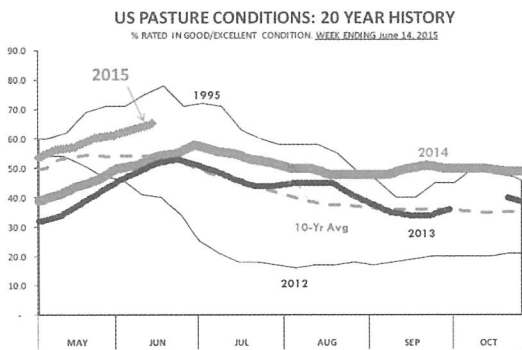


그림4. 미국 방목지 상황

전세계적 불황의 확대와 미국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FRB(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한 달러 통화량 감축은 세계 경제 회복에 심각한 먹구름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었으며, 이는 사료 가격 인하폭을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향후 경기 회복과 세계 경제 동향에 따라 변화할 환율이 목장의 생산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큰 방향에서 상승세에 있는 환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국내외 사료산업 전망과 농가 생산비에 미치게 될 영향

2015년 안정적인 곡물 작황의 효과는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 곡물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작부면적이 결정되고 파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호주산 조사료(연맥 등)의 작황 호조와 세계적 낙농 불황은 조사료 수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가뭄이 없는 한 2016년 목장의 우유 생산비는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커서, 수입되는 사료용 원료와 조사료 가격이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비의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무역여건을 감안하면, 달러 강세는 앞으로 지속될 정책으



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생산비에 대비해 목장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투자는 안정적인 목장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2011년 FMD로 유발된 대규모 살처분은 잘 개량된 종축을 잃고, 국가 전체적으로 큰 실연을 가져왔다. 부족한 원유를 채우기 위한 전국적 노력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반대로 기존 설비(우사, 착유시설 등)에 사육두수만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유발해 젖소 관점에서는 더욱 불편한 사육환경이 된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문제, 착유 세정수 및 축분 자원화와 관련된 시행령은 목장의 규모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생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생산자 관점에 꼭 필요한 것은 건물 1kg을 원유로 전환하는 효율, 즉 비유효율(Dairy efficiency)을 개선하는 것이다. 같은 양의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쿼터제 하에서 목장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동물복지와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국내산 원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출발점이 되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사육되는 건강한 젖소인 만큼, 추가적인 우사를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 목장의 생산쿼터와 목표 경제산차에 적합한 육성우만 사육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될 생산쿼터제 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는 목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장의 경영을 합리화 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